2026. 3. 16

소비재/플랫폼 Weekly

틱톡으로 뛰어드는 얼타 뷰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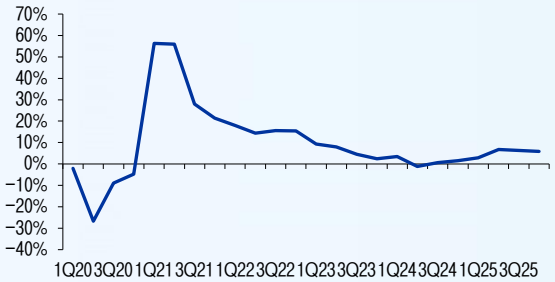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Ulta Beauty 4Q25 실적: 연간 기존점 신장률 5.4% 기록
- ✓ 2026년 기존점 신장률 가이던스 2.5~3.5%, 영업이익 성장률 6~9%, EPS 28.05~28.55달러 제시
- ✓ Ulta: 2026년 북미 뷰티 시장 성장률을 2~4% 수준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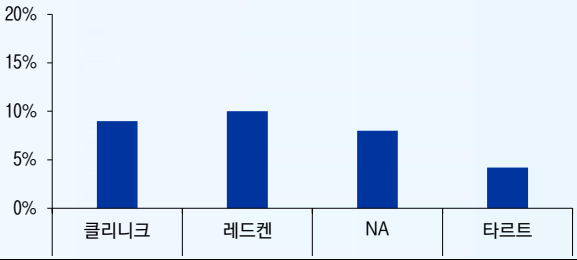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Ulta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Ulta,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Ulta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브랜드 구성비: 브랜드 분산형 Mass-Prestige 구조



자료: BeautyMatter, LS증권 리서치센터

4Q25 실적: 연간 기존점 신장률 5.4% 기록

얼타 뷰티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39억달러를 기록, EPS는 8.01달러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 연간 기준으로는 순매출 124억달러(+9.7%), 영업이익률 12.4%, EPS 25.64달러를 기록하며 가이던스를 상회했고 기존점포 신장률은 5.4%로 나타남. 4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5.8%로 객단가(+4.2%)와 객수(+1.6%)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커머스는 mid-teen, 오프라인은 low single-digit 성장세를 보임. 카테고리별로는 향수가 두자릿수 성장으로 가장 강했고 헤어케어는 high single-digit, 스킨케어/웰니스는 mid-single digit 성장을 기록. 특히 메디큐브, 아누아, Peach & Lily 등 K뷰티 브랜드와 웰니스 신규 브랜드 유입이 성장 요인으로 언급됐으며, 2025년은 신규 브랜드 확대, 이커머스 강화, Space NK 인수, 해외 매장 확장 등을 통해 매출 성장과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 한 해로 평가

2026년 북미 뷰티 시장 성장률 2~4%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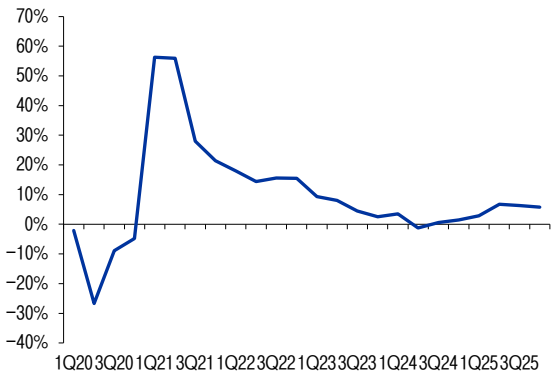
2026년 얼타의 핵심 전략은 사업 구조 다변화와 디지털 확장이 될 전망. 회사는 기존점 신장률 2.5~3.5%, 순매출 성장률 6~7%, 영업이익 성장률 6~9%, EPS 28.05~28.55달러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2026년 뷰티 시장 성장률 전망치(2~4%) 대비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한 수준. 특히 틱톡샵 입점을 통해 SNS 기반 커머스 채널을 확대하며 새로운 유통 채널 확장 계획. Space NK 인수 효과와 낮은 기저, Rare Beauty 초기 판매 효과로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될 전망이며, 카테고리 믹스는 K뷰티와 웰니스, 프레스티지 헤어 및 향수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경쟁 환경은 Target, Walmart 등의 뷰티 강화로 심화되고 있어 얼타에게는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질 것

틱톡으로 뛰어드는 얼타 뷰티

4Q25 실적: 연간 기존점 신장률 5.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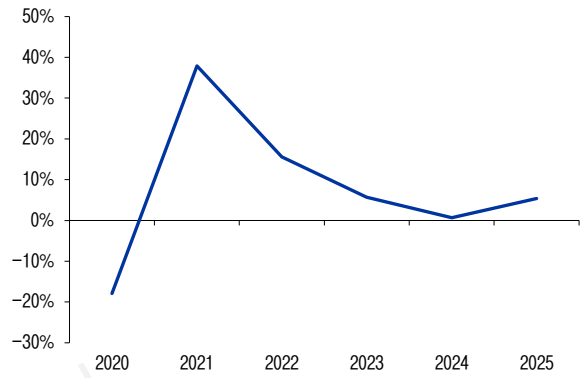
얼타 뷰티의 2025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한 39억달러, EPS는 8.01달러로 컨센서스 8.03달러를 소폭 하회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순매출 124억달러(+9.7%), 영업이익률 12.4%, EPS 25.64달러를 기록하며 가이던스를 상회했다. 4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5.8%를 기록했다. 객단가가 4.2%, 객수가 1.6% 증가했고, 이커머스는 mid-teen 성장, 오프라인 기존점은 low single-digit 성장을 보였다. 카테고리별 성장률은 향수가 두자릿수 성장으로 가장 강했고, 헤어케어도 high single-digit 성장세를 보였다. 스킨케어/웰니스 부문은 mid-single digit 성장했는데, 메디큐브, 아누아, Peach & Lily 등의 K뷰티 브랜드와 웰니스 신규 브랜드 유입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언급이 있었다. 2025년은 신규 브랜드 확대, 이커머스 강화, Space NK 인수, 해외 매장 확장 등을 통해 매출 성장과 점유율 상승에 집중한 한 해였고, 연간 기존점포 신장률은 5.4%를 달성했다.

그림1 Ulta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Ulta,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Ulta 연간 기존점 신장률 추이



자료: Ulta,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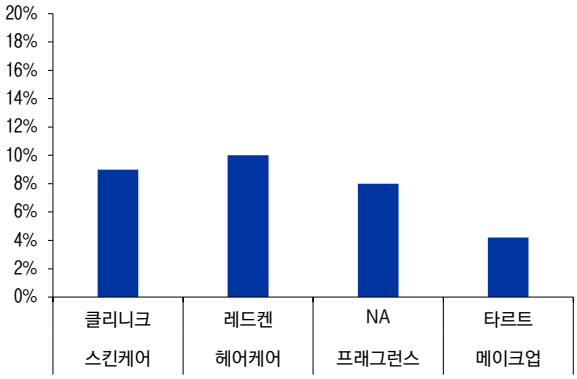
Ulta: 2026년 북미 뷰티 시장 성장률 2~4% 수준 전망

2026년 얼타의 핵심 전략은 사업 구조 다변화에 집중되어 있다. 회사는 2026년 기존점 신장률 가이던스를 2.5~3.5%, 순매출 성장률 6~7%, 영업이익 성장률 6~9%, EPS 28.05~28.55달러를 제시했다. 절대 성장률만 보면 2025년 대비 둔화된 수치지만, 회사는 2026년 뷰티 시장 성장률을 2~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업 평균 이상의 성장과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해석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틱톡샵 입점이 시작된다. 틱톡과의 협업은 고객이 콘텐츠를 접하는 즉시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며, 얼타가 2025년 구축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다변화 구조를 SNS 기반 커머스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2026년은 얼타에게 상반기가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전망이다. Space NK 인수 효과와 낮은 기저, Rare Beauty 초기 판매 호조 효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더불어 틱톡샵 신규 입점 효과에 따라 추가 성장 여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기존의 메이크업 편중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카테고리 믹스 측면에서는 K뷰티와 웰니스 제품, 프레스티지 헤어 및 향수 부문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5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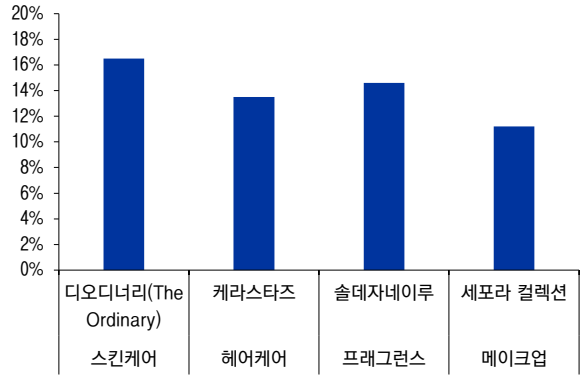
선행 투자했던 이커머스, 마케팅, AI 관련 내용이 올해부터는 안정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매출총이익률을 flat, 영업이익률은 flat~+20bp 개선으로 제시했다. 경쟁 환경은 타겟, 월마트 등 Mass retailer의 뷰티 강화로 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얼타는 2026년 지난 해 확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전환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점유율 확대와 이익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림3 **Ulta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브랜드 구성비: 브랜드 분산형 Mass-Prestige 구조**



자료: BeautyMatter,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Sephora 카테고리별 매출 상위 브랜드 구성비: 브랜드 집중도 높은 Prestige 구조**



자료: BeautyMatter,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시가총액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5,487	45,303,306	-1.8	-0.4	31.7	61.6	113.2	30.2	-	-	-	-	-	-
코스피 대형주	5,824	40,496,090	-2.0	0.2	35.6	70.2	127.2	33.0	-	-	-	-	-	-
코스닥	1,153	6,345,182	-0.2	4.2	23.0	36.1	59.5	24.6	-	-	-	-	-	-
코스피 중형주	4,257	3,718,145	0.0	-4.6	8.8	16.7	47.4	14.4	-	-	-	-	-	-
코스피 소형주	2,741	1,040,987	0.6	-2.2	6.0	9.3	26.9	8.9	-	-	-	-	-	-
유통														
코웨이	73,600	52,085	-2.1	-17.9	-14.6	-26.5	-12.9	-15.3	8.6	7.8	6.8	1.4	1.2	1.1
호텔신라	42,300	16,602	0.6	-13.3	-7.9	-16.9	6.6	-5.2	-11.7	23.2	14.0	1.4	1.3	1.2
BGF 리테일	117,600	20,326	2.3	-15.6	6.8	8.0	11.9	12.2	10.9	9.7	9.0	1.6	1.4	1.3
GS 리테일	18,960	15,852	1.0	-14.6	-13.6	13.8	27.6	-5.7	10.7	7.8	7.1	0.5	0.5	0.4
롯데쇼핑	96,000	27,157	-0.8	-15.3	27.3	40.6	43.1	32.4	34.6	10.3	8.9	0.2	0.2	0.2
신세계	326,000	31,443	-2.4	-10.4	26.9	84.6	110.5	32.0	30.4	12.1	9.9	0.7	0.6	0.6
이마트	93,700	25,857	1.2	-15.8	14.0	21.9	12.6	15.3	8.0	11.8	8.8	0.2	0.2	0.2
현대백화점	84,500	19,121	-5.6	-23.0	-11.1	5.8	42.7	-4.6	8.4	7.2	5.9	0.4	0.4	0.3
SK 네트웍스	5,300	11,728	1.2	-2.2	11.8	18.0	23.7	17.3	21.9	19.2	16.7	0.5	0.5	0.5
인터넷														
NAVER	223,000	349,781	0.2	-11.7	-8.8	-5.5	3.2	-8.0	16.3	15.7	14.0	1.2	1.1	1.1
카카오	50,600	224,040	-5.6	-11.9	-15.4	-22.8	17.3	-15.8	41.7	33.1	27.2	2.1	1.9	1.8
게임														
크래프톤	244,500	115,904	8.2	-4.9	-1.8	-24.2	-31.7	-0.6	13.2	11.6	9.6	1.5	1.3	1.2
넷마블	54,800	44,914	1.5	-4.2	9.2	-11.5	35.6	13.6	14.9	13.2	11.7	0.8	0.8	0.7
엔씨소프트	228,500	49,228	6.5	7.8	17.2	3.9	40.2	13.4	13.7	14.6	12.0	1.3	1.2	1.1
펄어비스	65,800	42,275	11.9	31.9	75.5	91.3	112.9	75.9	-474.2	19.0	30.7	5.1	4.0	3.4
카카오게임즈	13,730	12,328	2.6	-9.4	-13.9	-16.4	-13.6	-7.9	-9.1	-53.3	20.0	1.0	1.0	1.0
더블유게임즈	50,500	10,693	1.0	-6.0	-7.2	-8.8	0.4	-5.8	7.3	6.1	5.6	0.8	0.7	0.6
NHN	39,100	12,806	6.8	5.3	30.3	40.1	116.1	34.6	36.2	12.3	9.1	0.8	0.8	0.7
웹젠	12,350	4,273	-3.0	-14.7	-13.0	-13.3	-1.3	-4.3	14.9	8.7	7.5	0.6	0.5	0.4
컴투스	33,600	4,063	0.3	-4.8	12.0	-17.3	-24.6	15.7	85.2	16.5	12.0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31,000	76,626	-0.5	-18.6	7.6	7.3	16.3	9.6	33.7	25.2	21.8	1.7	1.6	1.5
LG 생활건강	249,500	38,180	0.6	-9.8	-5.1	-15.1	-23.7	-3.5	34.5	32.2	20.3	0.7	0.8	0.7
실리콘투	36,500	22,328	-8.9	-15.1	-10.4	-12.6	37.0	-5.6	13.2	10.5	8.4	5.3	3.5	2.5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6,750	20,453	-1.7	-22.4	-2.4	-2.7	26.2	-0.4	16.4	0.0	0.0	0.7	0.0	0.0
한국콜마	71,700	16,925	2.4	-1.0	11.7	-9.4	7.5	15.5	16.4	11.7	9.9	1.9	1.7	1.5
코스맥스	177,200	20,111	4.9	-12.7	8.3	-19.3	-4.2	8.7	34.9	14.7	12.2	4.0	3.0	2.5
브이티	15,060	5,262	-1.7	-24.7	-19.2	-50.5	-57.3	-14.0	8.8	0.0	0.0	0.0	0.0	0.0
코스메카코리아	72,800	7,775	-5.0	-27.1	7.9	10.0	61.6	9.3	15.8	12.1	10.4	3.0	2.4	1.9
씨앤씨인터내셔널	26,300	3,585	-5.1	-22.7	-15.8	-38.4	-40.7	-11.3	16.0	17.6	11.1	1.7	0.9	0.8
클리오	11,690	2,113	-2.2	-13.5	-12.2	-17.9	-46.4	-10.3	15.3	11.4	10.9	0.0	0.8	0.8
한국화장품제조	48,300	2,189	-7.3	-7.8	-3.1	-19.2	-1.9	-1.2	0.0	0.0	0.0	0.0	0.0	0.0
아이패밀리에스씨	11,200	1,940	-4.5	-24.2	-24.6	-52.7	-46.7	-18.0	8.1	6.2	5.3	1.7	1.3	1.1
마녀공장	12,040	1,974	0.7	-16.0	-15.1	-26.4	-37.2	-12.1	0.0	0.0	0.0	0.0	0.0	0.0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 3. 13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8.7%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1.3%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1. 1 ~ 2025. 12.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